

# ‘개헌 시계’ 촉박한데 간극 커지는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회동  
 한국당 “10월에 투표하자”  
 민주 “한국당 당론 제시해야”  
 靑 “정부개헌안 국민의견 수용”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내용에 이어 개헌 시기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 개헌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 정치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만찬 회동을 갖고 개헌 합의의 위한 협상 창구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에 개헌안 당론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개헌에 대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틈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개헌안 당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쟁점으로 연일 정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80% 가까운 국민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 강화 방안을 밝혔음에도 대토 바깥·임기연장안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개헌 의회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시기를 10월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10월 중에 국민개헌 투표 일자를 먼저 교섭단체가 합의



**지방선거 모의 개표 실습** 22일 광주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남구선거관 직원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관리를 위해 모의개표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하고,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며 “하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말까지 한국당이 안을 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노골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개헌을 마련하고자 국회 헌정특위와 사개특위가 가동되는데 우 원내대표가 ‘3+3+3(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 형식을 제시하는가 하면 교섭단체 대표를 넘어서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포함하자고 했다”며 “이는

국회 차원에서 만든 개헌 논의의 장을 건어차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관련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또 개헌안에 ▲중앙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시간이 짧지만 거듭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평창효과’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상승

리얼미터 바른미래당 7.4%...출범 1주일만에 3.1%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상승하면서 5주 만에 65%를 넘겼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올랐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지난 19~2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3.1%포인트(P) 상승한 66.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60.8%를 기록한 뒤 4주간 65% 이하에서 머물렀으나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6%P 오른 50.5%를 기록, 6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주보다 1.8%P 내린 19.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주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고 공식 출범한 바른미래당의 경우 3.1%P 하락한 7.4%의 지지율에 머물렀다. 정의당은 0.1%포인트(P) 상승한 6.2%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5%P 내린 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6·13 선거 현장

### ‘복구청장 출마’ 문인 전 행정부시장 출판기념회

지방선거 광주 복구청장에 출마한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오는 24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자서전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연다.



관계에서 조정 능력,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등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결집했다.

문 전 시장의 자서전에는 기술 관료 출신으로 시 행정부시장에 오르기까지 31년간 공직 생활의 소회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광주에서 맡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능력, 중앙 부처와의

문 전 부시장은 “중앙 부처와 광주시에서 공무원으로 일정을 바쳐 일했던 경험과 끈 결집을 담아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진심을 담아내려 노력했다. 함께 읽어 주시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동구청장 출마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로 4년 동안 동구를 5대 특구로 발전시켜 문재인의 꿈과 정신을 동구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동구명,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구가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지역 발전 사업이며, 앞으

양 전 의원은 “동구명과 더불어 문재인의 정부와 함께 광주시와 동구의 한을 풀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아름답고 희망찬 동구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한필 전 민주 공정국가위 부위원장 광산구청장 출마

임한필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정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근로 및 정주 여건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간 부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 증진에 올인하겠다”면서 “기존 산단 인프라를 확충하고,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와 육성에도 힘쓰는 한편

그는 “35년 된 하남산단을 비롯해 노후산단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나서 침체된 광주시와 광산구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광주시의 엔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경찰·민주당, 이용섭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 당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불법 유출 및 활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다수의 피해자들은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 조직국장 A씨,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당원명부 유출로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당원명부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광주시당과 명부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A

씨, 이 전 부위원장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당원 명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수사 의뢰 등 아무런 법적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아 집단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추진단은 당원명부 피해 당원들의 추가 피해사례를 취합한 뒤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100여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주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금전적인 피해보상보다는 당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악용한 것에 대한 진정

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최근 6·13지방선거 광주시당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전 부위원장 이름으로 ‘지난 1월과 지난해 말께 광주지역 권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민주당 등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일부 광주시당 임후보자에게 당원 명부가 실제 전달됐는지, 그리고 이 명단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당 차원의 후속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선거 후보자 검증 돌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22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후보자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후 등록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검증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당은 김병솔 당 윤리심판원장이, 전남도당은 박병중 고종순수가 각각 검증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검증위는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심층 심사를 진행해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악학과	2
	실용음악학과	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 형 일 : 2018. 2. 24(토)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D.Ed.)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원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길 36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 대학원 605-1115